

〈大觀齋記夢〉의 “비애정류 전기소설” 양식적 특징과 전기소설사적 의의

권 도 경*

I. 문제 설정의 방향

II. 〈대관재기몽〉의 “비애정류 전기소설”적 속성과 양식적 상동성

III. 〈대관재기몽〉의 16세기 전기소설사적 전변성과 소설사적 의의

IV.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몽유록의 효시로 규정되어 왔으면서도 여타 16세기 이후의 몽유록에서 확인되는 몽유록의 양식적 전형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작품으로 규정되어 온 〈대관재기몽〉의 양식적 범주 및 소설사적 의의를 전기소설의 양식적 속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양식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대관재기몽〉이 15세기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을 통해 전기소설사에 새롭게 신설된 “비애정류 전기소설”을 계승하되 16세기적으로 변주한 전기소설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관재기몽〉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과

* 우석대학교 조교수 / dk11815@naver.com

의 양식적 상동성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沈某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주인공 朴生·韓生에서 전형성이 형성된 바, 현실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문사적 욕망을 몽중세계 인물의 인정을 통해 충족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주인공의 인물 형상과 같은 전기적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대관재기몽>의 몽중서사는 이처럼 당초 현실세계에서 결핍되어 있던 심모의 욕망이 몽유의 환상성을 매개로 대리 충족되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양식적인 욕망 충족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관재기몽>의 몽중세계와 현실세계는 상호 영향 관계에 있는 탈경계적인 연속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적인 양식적 전형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바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내부적인 16세기적 전변성이 지니는 전기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대관재기몽>은 욕망 충족 과정의 극적·세속적 반복 및 외적 갈등 추가를 통한 현실성·통속성 강화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한 작가의 전기적 지평 연계 및 주인공의 현실적 결핍감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구축된 양식적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16세기적인 전변성을 보여준다.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16세기적 전변작으로서 <대관재기몽>이 지니는 전기소설사적 의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작품 목록 확충, “비애정류 전기소설” 중심의 16세기 전기소설사적 차별성 강화, 17세기 전기소설사의 현실성 강화 맥락에 연계되는 선제적 기반 구축, 나말여초부터 17세기까지 지속된 역사성 강화 흐름 매개적 계승, 타자와의 외적 갈등을 통해 서사적 흥미를 추구한 통속성의 선제적 구현 등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 주제어

대관재기몽, 심의, 16세기, 비애정류 전기소설, 몽유록

I. 문제 설정의 방향

작가·창작시기가 미상인 작품이 대부분인 고소설사에서 〈大觀齋記夢〉은 일찍부터 작가와 창작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온 몇 안 되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16세기 문인 沈義(1475~?)의 문집인 『大觀齋亂稿』 권 4 雜著에 〈記夢〉이란 제목으로 실려있는 까닭이다. 특이한 점은 작자 심의가 자신의 문집인 『대관재난고』에 “夢遊錄”이 아닌 “記夢”으로 제목을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재기몽〉이 “몽유록”이란 하나의 양식명을 아예 일관되게 제목에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몽유록 양식의 효시 작품으로 규정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몽유록 양식 범주 소속 모든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몽유록”이란 양식명이 〈대관재기몽〉의 제목에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관재기몽〉을 몽유록 양식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것은 17세기 이후 본격화 되는 몽유록과의 양식적 유사성¹⁾이다. 17세기 이후 전성기를 맞은 몽유록 양식의 특징이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대관재기몽〉을 몽유록 양식의 효시로 규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몽유록과의 양식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왔던 〈대관재기몽〉의 양식 범주 규정은 〈대관재기몽〉과 유사성을 공유하는 양식이 몽유록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삼스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관재기몽〉과 상동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거론되어 온 여타의 대표적인 양식에는 우연²⁾·전기소설³⁾ 등이 있는데, 우연이 소설적으로 발전한

1) 장덕순, 「몽유록소고」, 『동방학지』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적 의의」, 『한국학연구』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징」, 『관악어문연구』 2, 관악어문학회, 1977; 이원주, 「대관재의 몽기·몽사자연지고」, 『한국학논집』 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차용주, 『몽유록계 구조의 분석적 연구』, 창학사, 1979;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소재영, 「조선조 서사문학의 사적 계보」, 『성곡논총』 27, 성곡언론문화재단, 1996; 조현철,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2)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징」, 『관악어문연구』 2, 관악어문학회, 1977

양식 중의 하나가 몽유록이라는 점에서 <대관재기몽>이 우언과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대관재기몽>이 몽유록의 효시라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대관재기몽>이 전기소설과도 양식적 유사성을 공유한다면 <대관재기몽>의 양식 귀속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나말여초부터 존재해온 전기소설은 16세기에 비로소 나타난 몽유록의 先在 양식이라는 점에서 우언과 같지만 몽유록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우언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관재기몽>이 유사성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양식 중의 하나인 전기소설이 본격적인 최초의 소설이라는 사실에 새삼 주목하게 될 때, <대관재기몽>의 양식 규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볼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나말여초부터 존재해온 전기소설의 양식적 유사성을 지닌 <대관재기몽>이 전기소설 양식에서 분지되어 몽유록 양식을 성립시킨 최초의 작품이라는 것으로, 몽유록과의 양식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하여 <대관재기몽>을 몽유록의 효시로 보는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이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기소설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 몽유록만의 양식적 속성이 <대관재기몽>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전기소설에 부재한 몽유록만의 양식적 속성에 대한 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대관재기몽>의 몽유록적 속성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주로 우언성⁴⁾·이념성⁵⁾·허구성⁶⁾·교술성⁷⁾·소설성⁸⁾·몽유구조⁹⁾

；윤주필, 「우언의 전통과 조선전기 몽유기」, 『민족문화』 16, 한국고전번역원, 1993
；안세현, 「조선전기 기문에 나타난 우언 글쓰기 양상과 그 의미」, 『한문학논집』 43, 근역한문학회, 2016 ; 조현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 3)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관악어문학회, 1977 ; 김광순, 「조선전기 한문소설의 전개 양상과 유형」,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 조현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 4)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관악어문학회, 1977.
- 5) 정학성, 앞의 논문.
- 6) 정학성, 앞의 논문.

등이다.

그런데 이들 몽유성·우연성·이념성·소설성은 전기소설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몽유성·소설성이 나말여초부터 출현했던 “애정류 전기소설”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면, 몽유성·우연성·이념성·소설성은 15세기에 비로소 성립된 “비애정류 전기소설”에서도 모두 확인되는 것이다. “비애정류 전기소설”이 몽유록과 몽유성·우연성·이념성·소설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몽유록이 아니라 전기소설인 것은 몽유록에 존재하지 않는 전기소설만의 양식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관재기몽>이 전기소설 양식에서 분지되어 몽유록 양식을 성립시킨 최초의 작품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몽유록을 구성하는 몽유성·우연성·이념성·소설성·몽유구조 외에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만이 지니고 있는 바의 전기소설적 속성이 확인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대관재기몽>에 몽유록과 공유하는 몽유성·우연성·이념성·소설성 외에 전기소설에만 존재하는 양식적 속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관재기몽>이 전기소설 양식에서 분지되어 16세기 몽유록 양식을 성립시킨 효시 작품이라는 기존 시각은 유지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대관재기몽>이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내부에서 16세기적 전변을 이루어낸 전기소설이라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 규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몽유록이 공유하고 있지 않은 전기소설만의 양식적 속성이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어야만 한다. 현재까지 몽유록과 공유되지 않는 전기소설 특유의 양식적 속성으로 거론되어 온 것은 전기적 인간의 환상을 통한 현실적 욕망의 대리 충족 구도¹⁰⁾이다. 현실적인 욕망의

7)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8)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상, 1978 ;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93.

9) 차용주, 『몽유록계 구조의 분석적 연구』, 창학사, 1979 ;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10) 신재홍은 『한국몽유소설연구』(계명문화사, 1994)에서 <대관재기몽>이 몽유록의 양식적 구조인 ‘좌정-토론-시연’이 아니라 전기소설의 양식적인 욕망 성취의 속성을

결핍을 경험하며 현실세계와 불화 상태에 있던 주인공이 현실세계 내부에 일시적으로 축조된 환상적 공간 혹은 몽유세계 속에서 이제 인물과의 만남·교유·사랑을 통한 일치감 확인에 의해 현실적 결핍감을 대리 충족하는 구도가 된다. 만약 <대관재기몽>에 몽유록에서는 부재하는 전기소설 양식적인 속성이 확인된다면 <대관재기몽>은 “비에정류 전기소설”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전변을 꾀했던 15세기 전기소설사를 계승한 16세기 전기소설의 전변 작품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일단 논의의 편의를 위해 “비에정류 전기소설”의 개념을 정의해 보기로 하자. 기존 전기소설 연구사의 대표적인 전기소설 하위유형 분류체계에는 김종철¹¹⁾의 “愛情傳奇小說類”·“몽유록 형태”와 윤재민¹²⁾의 “愛情傳奇類”·“知遇類”가 있다. 김종철·윤재민의 “애정전기소설류”·“애정전기류”는 남녀 간의 애정성취를 중심으로 한 전기소설 부류를 지칭하며, 김종철·윤재민의 “몽유록 형태”·“지우류”는 몽유록처럼 역사적·이념적 문제를 교술적으로 논의한 전기소설 부류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들 기존의 전기소설 하위유형 체제로는 전기소설의 실제 존재 양상이 명확히 포괄·분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적으로 김종철의 전기소설 하위유형 분류체계에 따르자면, 몽유록처럼 입몽·각몽의 직접적인 지표가 명확히 나타나지만 몽유록에서와 같은 역사적·이념적 문제에 대한 교술적 논의가 아니라 남녀 간 애정 성취 문제 중심의 나말여초·17세기 <조신몽>·<운영전>에 대한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말여초·17세기 <조신몽>·<운영전>은 김종철이 구분해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재홍은 한국 전기소설이 아니라 중국 唐代 전기소설인 <침중기>와의 비교를 통해 전기소설적인 성격을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신재홍은 몽유록의 양식적인 ‘좌정-토론-시연’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대관재기몽>이 전기소설의 양식적인 욕망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대관재기몽>의 양식적 범주를 결론 짓지 않고 전기소설이 아닌 전기소설과 몽유록의 중간적·복합적 작품으로 규정하는 데 그쳤다.

11)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양상과 그 특질」, 『민족문화연구』 2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

12) 윤재민, 「조선후기 전기소설의 양상」, 『민족문화사연구』 5,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놓은 “애정전기소설류”와 “몽유록 형태” 어느 쪽에도 명확히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남녀 간의 애정 성취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운영전>은 몽유록 같은 입몽-각몽의 직접적인 지표가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남녀 간의 애정 성취가 몽유자의 방관자적인 몽중 관찰로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16세기 이후 출현한 몽유록의 양식적인 서사구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몽유록 형태”는 “애정전기소설류”와 함께 전기소설을 구성하는 하위유형의 대칭쌍으로서 “애정전기소설류”에는 “몽유록 형태”의 양식적인 속성을 지닌 전기소설 작품이 존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애정전기소설류”로 분류하기 마련인 전기소설 작품들 속에서 “몽유록 형태”의 양식적 특징을 지닌 텍스트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몽유록 형태”는 “애정전기소설류”와 함께 전기소설을 구성하는 하위유형의 대칭쌍으로 설정될 수 없다. 따라서 “애정전기소설류”와 함께 전기소설을 구성하는 하위유형의 대칭쌍은 “애정전기소설류”와 다수의 전기소설 작품들을 공유하는 “몽유록 형태”가 아니라 “애정전기소설류”를 제외한 나머지 전기소설 범주, 즉 非 “애정전기소설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윤재민의 전기소설 하위유형 분류체계에 따르자면 “지우류”라는 분류명에 사용된 “知遇”의 일반적인 사전적 개념은 “知己”의 인격·학식에 대한 대우” 정도인데, 이러한 “지우”는 “애정전기류”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애정전기류”의 대칭쌍 명칭으로 활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있다. 知己知音적 만남이 보편적인 양식적 특질을 이루고 있는 전기소설에서 “지기의 인격·학식에 대한 대우”를 의미하는 “지우”는 전기소설 하위유형 일반에서 나타나는 것인 바, 지기지음적 만남의 서사적인 진행태에 해당되는데,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 등의 “애정전기류”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 등의 “애정전기류”에서도 여성에 대한 지기지음적 만남을 전제로 지기지음 여성과의 내적 소회 담화 및 한시 창화를 통해 현실적 결핍을 대리 충족 받는 인격적·대우로서의 애정적 “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 등의 “애정전기류”는 지

우의 구체적인 대상·실현태가 지기지음 여성 및 지기지음 여성의 애정으로 형상화되어 있을 뿐이지 “지기의 인격·학식에 대한 대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 등 “애정전기류”와 함께 전기소설을 구성하는 하위유형의 대칭쌍을 “지기의 인격·학식에 대한 대우”를 중심으로 한 “지우류”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할 “애정전기류”, 곧 지기지음 여성과의 애정으로 구현된 인격적·학식적 대우 유형이 그 속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지우류”는 “애정전기류”와 대칭쌍을 이루는 전기소설의 하위유형이 아니라 “애정전기류”를 포함하는 상위유형으로서 지기지음적 만남을 전제로 지기지음적 대우를 다기한 형태로 실현하는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질의 포괄적 명칭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정전기류”와 함께 전기소설을 구성하는 하위유형의 대칭쌍은 “애정전기류”를 포괄하는 “지우류”가 아니라 애정적 “지우류”에 해당하는 “애정적 전기류”를 제외한 전기소설 범주의 나머지, 곧 여성이 아닌 지기지음 이계인물에 의한 비애정적 “지우류”를 의미하는 非 “애정전기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사에서 남녀 간 애정 성취 중심적인 전기소설 하위유형을 지칭해온 “애정전기소설류”·“애정전기류”를 “애정류 전기소설”로 통칭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애정류 전기소설”과 함께 전기소설을 구성하되 “애정류 전기소설”에 속하는 전기소설 작품을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기지음 이계인물에 의한 비애정적인 인격적·학식적 대우를 중심으로 한 전기소설 작품들을 “비애정류 전기소설”로 분류함으로써 기존 연구사에서 남녀 간 애정 중심적 하위유형군의 대칭쌍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는데 실패했던 문제를 “애정류 전기소설”·“비애정류 전기소설”이라는 정합적인 하위유형 대칭쌍 설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양식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대관재기몽>이 15세기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을 통해 전기소설사에 새롭게 신설된 “비애정류 전기소설”을 계승하

되 16세기적으로 변주한 전기소설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관재기몽>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과의 양식적 상동성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바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내부적인 16세기적 전변성이 지니는 전기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II. <대관재기몽>의 “비애정류 전기소설”적 속성과 양식적 상동성

<대관재기몽>의 주인공은 자신의 문사적 능력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기회를 박탈당한 욕망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가 몽중세계의 인정을 통해 욕망을 충족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점에서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沈某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주인공 朴生·韓生에서 전형성이 형성된 바, 현실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문사적 욕망을 몽중세계 인물의 인정을 통해 충족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주인공의 인물 형상과 같은 범주에 위치해 있다.

[자료1]

- ① 내가 근래에 술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 평소에 늘 꿈을 꾸고 혹은 가위에 눌리고는 한다.¹³⁾
- ② 고인이 된 揖翠軒 朴間이 와서 나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조정에서 요직에 있던 분을 우연히 만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¹⁴⁾
- ③ 주방 사람들이 술과 음식을 내오는데 맛있는 고기와 진한 술이 있으며, 월나라와 제나라 여인 같은 미인들이 길게 노래하니 구름을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서로 눈짓하고 입으로 수작하며 자신을 잊고 많이 마시니 빨리 취하여 바로 말이 튀어 나왔다. 신이 동쪽 정원을 돌아보니 옥돌이 숲을 이루어 비취색이 더

13)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牛馬走近患醫疾, 居常夢或成魘.”

14)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故人挹翠朴間, 來握余手曰, 不意明廷, 邂逅舊要.”

하였다. 자신이 집안의 회계를 보여주기에 유의하여 자세히 보니 魚無迹이었다. 마침내 창고에 저장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니, 문채 나는 비단과 산호가 보관되어 있고, 금은의 진귀한 보석은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신이 화를 내어 말하기를, “폐하께서는 신을 石崇으로 대접하시나이까?” 하고는 곧 첩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많은 것을 또한 나누어 주었다.¹⁵⁾

[자료2] 성화 연간 경주에 朴生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박생은 유학으로서 대성할 것을 기약하고 힘쓰던 중 태학관에 보결생으로 천거되었으나 시험에 급제하지 못하여 항상 怏怏不樂이었다. 그는 뜻이 매우 높아 웬만한 세력에는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굽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러한 그의 성격을 보고 남들은 거만한 위인이라고 했으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태도가 대단히 온순하고 후하였으므로 칭송이 자자하였다.¹⁶⁾

[자료3] 고려 때에 韓生이 살고 있었는데,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 조정에게까지 알려지고 文士로 평판이 있었다.¹⁷⁾

[자료1]-① <대관재기몽>의 주인공은 현재 술병에 빠져서 보통 때에도 꿈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평상시에도 술에 취해서 꿈을 꾸거나 가위 눌린 듯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으니 현재적 관점에서 보자면 환경세계에 불만을 품고 술에 빠져 일상적으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진 일종의 알콜 중독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관재기몽>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료1]-①에서처럼 알콜 중독에 빠지게 한 현실적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료2]-②에서 확인

15)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廚人供酒饌, 甘醴醢醢, 越女齊姬, 長歌遏雲, 相與目成, 口號酬酢, 忘形痛飲, 徑醉趨出, 臣顧視東園, 珠玕成林, 翡翠脅翼, 家臣持示家果會計, 顧而審視之, 魚無赤也, 遂命披閱, 庫藏綾綃, 珊瑚金銀瓊珍, 不可枚數, 臣怒曰, 陛下以石崇待臣耶, 卽散諸姬妾, 所食方丈, 亦令減省.”

16) 金時習, 『金鰲新話』, <南炎浮洲志>, “成化初, 慶州有朴生者, 以儒業自勉. 常補大學館, 不得登一試, 常怏怏有憾, 而意氣高邁, 見勢不屈, 人以爲驕俠. 然對人接話, 淳愿醇厚, 一鄉稱之.”

17) 金時習, 『金鰲新話』, <龍宮赴宴錄>, “前朝有韓生者, 少而能文, 著於朝廷, 以文士稱之.”

할 수 있는 바, <대관재기몽>의 주인공이 한때 조정 요직에 등용되어 있었던 文臣이었던 사실이 15세기 역사적 실존인물 朴間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장인물의 입을 빌어 밝혀져 있다. 박은이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문인 중의 한 명으로 유자광을 탄핵하다 연산군에 의해 파직된 후 甲子士禍 때 사형당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입몽 직후 박은에 의해 환대를 받으며 한때 조정의 요직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대관재기몽>의 주인공은 뛰어난 文才로 환로에 올랐으나 정계의 대세에 자기 뜻을 굽히지 않다가 환로에서 쫓겨난 결과 자신을 환로에서 물러나게 한 현실과 불화하여 현재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추측 가능하다. 실제로 [자료1]-③를 보면 <대관재기몽>의 주인공은 입몽 후 자신에게 막대한 금은보화를 하사하는 문장국 천자에게 자신을 단지 물질적 부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인간으로 취급한다며 화를 낸 뒤에 모두 첩들에게 나누어줘 버리고 있는 바, 시류에 굴하지 않고 비판을 주저하지 않으며 청렴함을 견지하고자 하는 <대관재기몽> 주인공의 성격이 확인된다.

이처럼 뛰어난 문사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환로에서 쫓겨나 현실과 불화를 술로 풀고 있는 <대관재기몽> 주인공의 모습은 뛰어난 문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세상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면서도 시류에 편승하기를 거부하는 <남염부주지>의 주인공 박생([자료2])의 그것과 쌍생아처럼 닮아있다. <대관재기몽> 주인공과 <남염부주지> 박생의 인물 형상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전자의 경우 일단 한번 환경세계로부터 문재를 인정받아 환로에 오른 적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단 한 번도 현실적으로 문재를 인정받아 환로에 오른 적이 없다는 데 있을 뿐이다. 현실적인 욕망의 결핍 정도가 <남염부주지>의 박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약화되어 있을 뿐 <대관재기몽> 주인공의 인물 형상은 <남염부주지>에서 효시를 이룬 “비애정류 전기소설” 주인공의 전형성 내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바 환경세계와의 불화로 인한 “비애정류 전기소설” 주인공의 현실적 결핍 정도의 상대적인 약화는 <남염부주지>

와 더불어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를 이루는 <용궁부연록>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료3]을 보면 <용궁부연록>의 주인공 한생은 조정에 까지 알려질 정도로 문재가 뛰어났다고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 1]·[자료2]의 <대관재기몽>·<남염부주지>의 주인공과 같은 文士 캐릭터 다. [자료3]의 <용궁부연록>에는 한생의 登科 혹은 환로(宦路)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점에서 <용궁부연록>의 한생은 <대관재기몽>·<남염부주지>처럼 자신이 지닌 뛰어난 문재를 등과·환로를 통해 실제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현실적 욕망의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관재기몽>·<남염부주지>와 달리 <용궁부연록>은 한생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욕망의 결핍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해놓고 있지 않다는 점인 바, 결핍된 현실적 욕망에 대한 인지 정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남염부주지>와 더불어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 중 하나인 <용궁부연록>의 그것은 <대관재기몽>보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애정류 전기소설”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주인공처럼 입몽 전 현실적 욕망의 결핍 상태에 있던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는 입몽 직후부터 각몽 직전까지 환상의 문장국으로부터 현실적 욕망의 충족을 경험한다. 유사 몽유가 아닌 眞夢遊의 환상계를 통한 현실적 욕망 결핍의 대리 충족 기제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최초로 성립된 것으로, <대관재기몽>이 단지 주인공의 인물 설정 방식뿐만 아니라 서사구도 측면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내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된다.

[자료4] ① 신 등이 뜰에 내려가 맞아들여 열어 보았더니 그것은 천자께서 지은 읍시였는데, ‘밤바람이 씨를 날려 모래톱으로 보내네’란 구절이 있었다. 이 중에 ‘送’ 자가 온당치 않아 애를 써 보았으나 글자를 맞출 수가 없어서 학사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고치도록 하였다. 陳학사는 ‘過’ 자로, 鄭학사는 ‘集’ 자로 고쳤고, 신은 ‘落’ 자가 좋다고 하였다. 곧 불러 대궐에 들게 하시어 시의 어렵고 쉬운 것에 대하여 물으셨다. 신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이 시를 짓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워 애써 읊조려도 여러 날이 지나야 겨우 한 편을 이룰 수 있으나, 다음날 다시 읽어보

면 하자가 많아 문득 다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다등어서 聲律로써 覈을 삼고 物象으로 뼈대를 삼은 뒤에야 겨우 한 편의 市域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㉔천자게서 말씀하시기를, “경이 시를 논함이 바로 나의 마음과 같이 합치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날마다 세 번 접견하는 은총을 입었고, 더불어 제재 받음이 없도록 하였다.¹⁸⁾

[자료5] “간신이 일어나 크게 어지럽게 작당하여 윗 사람이 되어서 위엄으로 협박하면서 선을 행한다 생각하고 이름을 낚아올리면 그제 능히 편안하겠습니까?” ㉕왕이 오래 침묵하닥 탄식하며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¹⁹⁾

[자료6]”(상략) 소문에 들으니 선생의 이름이 三韓에 널리 알려졌으며 글솜씨가 백가에 으뜸이라고 하므로, 특별히 멀리서 모셔온 것입니다. 과인을 위하여 상량문을 지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중략) 한생이 글을 다 써서 용왕에게 바치자, 용왕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내 세 신에게 돌려 보이자, 세 신도 모두 떠들썩하게 탄복하며 칭찬하였다. 이에 용왕이 潤筆宴을 열었다.²⁰⁾

[자료4]-①과 [자료5]·[자료6]는 <대관재기몽>과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주인공 심모와 박생·한생이 몽중세계의 주재자인 천자·염왕·용왕에게 문장·담론 능력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현실세계에서 경험했던 욕망의 결핍을 간접적으로 대리 충족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료4]-①에서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는 몽중세계의 문장국 천자가 창작한 율시를 對偶·聲韻·字數·句數 규율에 맞게 가장 잘 수정한 문장창작력으로 문제를 인정받는데, 이처럼 주인공의 문장력에 대한 이계인물의 인정을 매개로 주인공의 현실적 결핍감이 충족으로 전환되는 양상은

18)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臣改落以啓, 天子以落爲可, 卽令召入大內, 問詩難易, 臣對曰, 臣作詩最苦, 悲吟累日, 僅能成篇, 明日取讀, 瑕疵百出, 輒復旬鍛月鍊, 以聲律爲廢, 物像爲骨, 然後庶可一獻詩域, 天子曰, 卿之論詩, 正合朕心, 日三寵待, 賜與無節.”

19) 金時習, 『金鰲新話』, <南炎浮洲志>, “姦臣蜂起, 大亂屢作, 而上之人, 脅威爲善以釣名, 其能安乎, 王良久歎曰, 子之言, 是也.”

20) 金時習, 『金鰲新話』, <龍宮赴宴錄>, “側聞秀才, 名著三韓, 才冠百家, 故特遠招, 幸爲寡人製之. (中略) 書畢進呈, 神王大喜. 乃命三神傳閱, 三神皆嘖嘖歎賞. 於是, 神王開潤筆宴.”

[자료6]의 <용궁부연록>에서 먼저 고안된 것이다. [자료6]의 <용궁부연록>과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자료5]의 <남염부주지>에서도 주인공의 현실적 결핍감에 대한 환상적인 대리 충족 매개체만 사상적인 담론 역량으로 교체되어 있을 뿐 몽중 서사가 입몽 이전의 주인공이 지니고 있었던 결핍된 현실적 욕망을 우회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한 기제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자료4]의 <대관재기몽>은 [자료5]·[자료6]의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구축되었던 바, 현실세계의 질서와 연속되지 못하고 괴리된 결과 욕망의 결핍 상태에 있던 주인공이 문장·담론을 매개로 몽중인물에게 인정받은 결과 환상계의 질서에 연속됨으로써 욕망을 충족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특유의 양식적인 욕망 충족 기제를 서사적으로 계승해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염부주지>에서는 사상적 담론을 매개로 한 주인공 박생과 이계인물의 일치감 확인 과정이 아예 부각([자료5]-㉔)되어 있는데, <대관재기몽> 주인공의 몽중 현실적 욕망 대리 충족 부분([자료4]-①-㉔)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염부주지>에서는 단지 주인공 박생의 담론에 대한 염왕의 동의로만 표현([자료5]-㉔)되었던 인물 간 일치감이 <대관재기몽>에 와서는 아예 주인공 심모의 문장 담론이 천자의 마음에 바로 합치된다([자료4]-①-㉔))라는 직서적인 표현을 통해 명확히 강조되어 있다. [자료4]의 <대관재기몽>에서는 단지 [자료6]의 문장창작력을 매개로 한 몽중 인물의 주인공 인정 및 일치감 공유로 그친 <용궁부연록>과 달리 [자료5]의 <남염부주지>처럼 담론 교환의 차원으로 주인공에 대한 인정 및 일치감 확인 과정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관재기몽>([자료4])은 <용궁부연록>([자료6])에서 시도된 바 문장창작력을 매개로 한 몽중 인물의 주인공 인정 및 일치감 공유 클리셰를 <남염부주지>([자료5]) 식의 담론 교환을 통한 몽중 인물의 주인공 인정 및 일치감 확인 클리셰와 결합시킴으로써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속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냈다고 할 수 있다.

<대관재기몽>의 몽유 장면에서 확인되는 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발전적인 재조합을 통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계승 양

상은 <대관재기몽>의 각몽 부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로 하여금 현실적 결핍감을 대리 충족하게 했던 몽중세계는 각몽 이후에도 현실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인공 심모는 현실적인 욕망 충족 지향을 포기하는 인식적 전환을 이룬다. 현실세계에 대한 몽중세계의 연속 관계를 기반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결핍된 욕망의 현실적 욕망 충족을 포기하는 것은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일찍이 구축된 “비애정류 전기소설” 양식적 속성 중 하나로, <대관재기몽>이 대단원까지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내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자료8] 신이 계단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직 인사를 하니 눈물이 옷을 적셨다. 집을 돌아보며 차마 떠날 수 없었다. ㉔잠시 후 상국 이색이 등을 어루만지며 협실로 끌고 들어가 신을 蘭蕩에 목욕시키고, 金刀로 신의 오장육부를 쪼개 부수고 먹ք 몇 말을 갈아 쏟아 부으며 말하기를, ㉕“마땅히 40여년을 기다려 다시 여기로 와서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다. ㉖가슴 속이 답답하기가 마치 찢르는 듯하여 마침내 잠을 깨어보니 배는 북처럼 부풀어 올라 있고, ㉗꺼져가는 등잔불은 흐린데 병든 아내는 곁에 누워 신음하고 있을 뿐이었다. ㉘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窮僻하고 榮達하는 것은 운수에 달려 있는데, 어찌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 이것을 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²¹⁾

[자료9] ㉙왕이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치하하는 칙명을 내리고 임금의 예로써 송별했다. 또 박생에게 칙령을 내리니, ‘머지 않아 마땅히 돌아오십시오. 수고스러운 이 한 번의 행차를 말씀을 베풀으셔서 인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황당한 말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시오.’ 박생이 또 두 번 절하고 감사를 드리기를, “감히 만의 하나라도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㉚문을 나서자 수레 모는 자가 발을 헛디디니 수레바퀴가 넘어졌다. ㉛박생이 땅에 굴러 놀라 일어나 깨달으니 한갓 꿈이었

21)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斯須, 李相國檣, 撫背誘致空室, 浴臣蘭湯, 以金刀剖破臣臟腑, 用磨墨汁數斗注之曰, 當待四十餘年, 復來于此, 共享富貴, 毋憂也, 腹心岑岑如刺, 遽然而覺, 則腹漲如鼓, 殘燈欲翳, 病妻臥側, 呻吟而已, 臣叩頭陞辭, 涕淚沾衣, 眷戀家室, 有不忍相離者, 噫人生於世, 窮達有數, 豈有覺夢兼之者.”

다. 눈을 뜨고 둘러 보니 서책은 책상 위에 던져져 있고 등잔불은 깜빡이고 있었다. ㉔박생이 의아한 생각에 오랫동안 있다가 스스로 장차 죽음을 생각하고 매일 집안 일을 처리하기에 전념하였다. 몇 달 후 병이 들어 필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아 의원과 무당을 물리치고 서거하였다. ㉕그 장차 죽으려는 날 밤에 꿈에 사방의 이웃에게 신인이 나타나 고하기를, “너의 이웃 집 아무개 공께서 장차 염라대왕이 되실 것이다.”²²⁾

[자료10] 한생이 두 번 절하고 작별하였다. 그랬더니 ㉖용왕이 산호쟁반에다 진주 두 알과 흰 비단 두 필을 담아서 노잣돈으로 주고, 문 밖에 나와서 절하며 헤어졌다. 세 신도 함께 절하고 하직하였다. 세 신은 수레를 타고 곧바로 돌아갔다. 용왕이 다시 두 사자에게 명하여 산을 뚫고 물을 헤치는 무소뿔을 가지고 한생을 인도하게 하였다. 한 사람이 한생에게 말하기를, “제 등에 올라타고 잠깐만 눈을 감고 계십시오.” 한생이 그 말대로 하였다. 한 사람이 서각을 휘두르면서 앞에서 인도하는데, 마치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오직 바람소리와 물소리만 들렸는데, 잠시도 끊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그 소리가 그쳐서 눈을 떠보았더니, 자기 몸이 거실에 드러누워 있었다. 한생이 문 밖에 나와서 보았더니 커다란 별이 드문드문 보였다. 동방이 밝아 오고 닭이 세 회나 쳤으니, 밤이 오경쯤 되었다. ㉗재빨리 품속을 더듬어 보았더니 진주와 비단이 있었다. 한생은 이 물건들을 비단 상자에 잘 간직하였다. 귀한 보배로 여기면서, 남에게 보여 주지도 않았다. ㉘그 뒤에 한생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명산으로 들어갔다.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²³⁾

22) 金時習, 『金鰲新話』, <南炎浮洲志>, “生奉詔, 周旋再拜而出, 王復勅臣民致賀, 以儲君禮送之, 又勅生曰, 不久當還, 勞此一行, 所陳之語, 傳播人間, 一掃荒唐, 生又再拜致謝曰, 敢不對揚休命之萬一.”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既出門, 挽車者, 蹉跌覆轍, 生仆地驚起而覺, 乃一夢也, 開目視之, 書冊拋地, 燈花明滅. 生感訝良久, 自念將死, 日以處置家事爲懷, 數月有疾, 料必不起, 却鑿巫而逝. 其將化之夕, 夢神人告於四鄰曰, 汝鄰家某公, 將爲閻羅王者云”.

23) 金時習, 『金鰲新話』, <龍宮赴宴錄>, “再拜而別. 於是, 神王以珊瑚盤, 盛明珠二顆, 冰綃二匹, 爲驢行之資, 拜別門外. 三神同時拜辭, 三神乘輦直返. 復命二使者, 持穿山簾水之角, 揮以送之. 一人謂生曰: ‘可登吾背, 閉目半餉.’ 生如其言. 一人揮角先導, 恰似登空, 唯聞風水聲, 移時不絕, 聲止開目, 但偃臥居室而已, 生出戶視之, 大星初稀, 東方向明, 鷄三鳴而更五點矣. 急探其懷而視之, 則珠綃在焉. 生藏之巾箱, 以爲至寶, 不肯示人. 其後, 生不以名爲懷, 入名山, 不知所終.”

[자료8]은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가 몽중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돌아오는 각몽 장면이다. [자료8]-㉔는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가 각몽 직후 처하게 된 육체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 북처럼 부풀어 오른 심모의 배는 단지 현실세계만의 환경적 영향으로 생긴 심모의 육체 상태가 아니다. [자료8]-㉔에서 심모의 배를 북처럼 부풀어 오르게 한 원인은 현실세계에 있지 않고 각몽 중의 몽중세계에 있다. [자료8]-㉔를 보면 각몽 직전의 몽중세계에서 몽중인물들이 금도로 심모의 오장육부를 쪼개어 몇 말의 먹즙을 쏟아부은 행위가 바로 [자료8]-㉔의 각몽 직후 현실세계에서 심모의 배를 북처럼 부풀어 오르게 한 원인임이 확인된다. 몽중세계 인물들이 심모의 오장육부를 갈라 먹즙을 쏟아붓는 행위는 단지 각몽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성을 표상할 물리적 지표의 형성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심모의 배는 몽중세계 인물이 심모의 오장육부를 부수어 먹물 몇 말을 쏟아 부은 결과([자료8]-㉔) 이미 몽중세계에서부터 북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였을 것으로, 각몽 직후 현실세계에서 드러난 바 북처럼 부풀어 오른 심모의 배([자료8]-㉔)는 이미 몽중세계에서 발생한 병증이 환상계와 현실계의 경계를 넘어 현실계로 옮겨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관재기몽>의 각몽 장면에서 확인 되는 북처럼 부풀어 오른 심모의 배([자료8]-㉔)는 그 자체로 <대관재기몽>의 환상적 몽중세계와 실제적인 현실세계가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는 물질적인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료8]의 <대관재기몽>의 각몽 장면에서는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상호 연속성이 몽중세계 인물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예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몽중세계의 예언이 주인공 심모에 의해 현실세계의 삶에서 수용되고 있다. [자료8]-㉔에서는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가 각몽 후 현실세계로 돌아간 지 약 40년 후에 몽중세계로 복귀할 것이라는 사실이 예고되고 있다. 심모가 몽유를 통해 경험하게 된 몽중세계가 단지 일회적인 환상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된 연속계라는 것으로, 40년 뒤 심모의 몽중세계 복귀가 실현되리라는 사실은 몽중세계

에서 심모가 겪었던 환상적 경험이 각몽 직후 심모의 육체적 병증으로 표상화 되어 있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료9]·[자료10]의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을 보면, <대관재기몽>의 각몽 장면에서 확인되는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체성이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도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체성을 형상화 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세부적으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염부주지>가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물리적 연속 상태는 물론 몽중세계 인물의 입을 빈 직접적인 예고를 통해 예술적으로도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체성을 표상하는 경우라면 <용궁부연록>은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에 공존하는 사물을 통해 물질적으로만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체성을 표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우선적으로 [자료9]-㉔를 보면 <남염부주지>의 각몽 직전에 몽중세계에서 박생이 탄 수레가 몽중세계 인물의 실수로 인해 넘어지는 특기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대관재기몽>의 각몽 직전에 몽중세계 인물들이 주인공 심모의 오장육부를 갈라 먹물을 쏟아 붓는 사건에 대응된다. 발을 헛디더 박생이 탄 수레를 넘어뜨림으로써 박생을 각몽시키는 <남염부주지>([자료9]-㉔)의 挽車者는 <대관재기몽>([자료8]-㉔)에서 주인공 심모의 오장육부를 쪼개 먹즙을 갈아 부음으로써 주인공 심모를 각몽시키는 문장국 相國 李穡에게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각몽 직전의 사건이 각몽 직후 주인공 심모의 육체적 병증에 연속되고 있는 <대관재기몽>과 마찬가지로, <남염부주지>에서는 각몽 직전에 몽중세계 인물로 인해 발생한 특기한 사건([자료9]-㉔) 역시 각몽 직후 현실세계에 다시 위치하게 된 박생의 상태([자료9]-㉔)에 영향을 미친다. <남염부주지>의 각몽 직전에 몽중세계의 수레 모는 자가 발을 헛디딘 바람에 박생이 탔던 수레가 넘어졌는 바, 이는 [자료9]-㉔처럼 각몽 직후 바로 땅에 구른 박생의 현실세계 상태와 바로 연속된다. 만약 박생이 각몽을 하지 않고 몽중세계에 남았다면 수레 모는 자의 실

수로 인해 넘어진 수레로부터 땅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박생의 모습은 몽중세계에 구현되었을 것인데, 각몽으로 인해 그 모습이 현실세계 속에 구현된 결과가 바로 [자료9]-㉔와 같은 박생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즉, 각몽 직후 처하게 된 박생 상태의 원인이 각몽 직전 몽중세계 사건에 있을 뿐 아니라 각몽을 전후로 한 몽중세계와 현실세계 속 박생의 물리적 상태가 상호 동일하다는 것으로, 각몽 직후 몽중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전기소설 일반적인 양식적 속성이 <남염부주지>에 구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염부주지>에서는 이처럼 물리적 상태의 동질성을 통해 표상된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상호 연속성이 몽중세계 인물의 몽중세계 속 예언 및 현실세계 출현을 통한 예언을 통해 언술적으로 재확인 되는데, 몽중세계·현실세계 상호 연속성의 물리적·언술적 반복 구도는 <대관재기몽>의 그것에 그대로 상응한다. [자료9]-㉕·㉖에서처럼 <남염부주지>에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박생의 죽음이 몽중세계에서의 박생의 염라대왕 등극으로 연속된다는 사실이 염라대왕 및 박생의 이웃들의 꿈에 나타난 이계 인물의 말을 통해 예고되고 있는 바, 박생이 경험했던 몽중세계가 일회성을 넘어 박생의 사후 생애로 연속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박생의 현실세계에서의 삶이 몽중세계로 연속된다는 사실이 꿈을 매개로 박생의 현실세계 주변인물들에게까지 공유됨으로써 박생이 경험했던 몽중세계가 현실세계와 연속되는 면적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관재기몽>은 몽중세계와 현실세계 간 영향 관계가 비록 <남염부주지>처럼 주인공의 현실세계 주변인물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성을 물리적·언술적인 차원에서 양가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남염부주지>에서 구축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미학을 세부적인 측면에서까지 계승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료10]-㉗를 보면 <용궁부연록>의 각몽 직전에 몽중인물인 용왕이 주인공 한생과 헤어지면서 노잣돈으로 준 진주와 비단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자료10]-㉘의 각몽 직후 현실세계로 돌아온 한

생의 품속에서 당초 몽중세계의 용왕이 한생에게 주었던 진주와 비단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몽 직전 한생이 용왕으로부터 진주·비단을 노잣돈으로 받았으니 한생 자신의 품 속에 진주와 비단을 챙겼을 상태가 각몽 직후 진주·비단을 품속에 지니고 있는 한생의 물리적 상태로 연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남염부주지>와 마찬가지로 <용궁부연록>의 몽중세계와 현실세계는 각몽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진주·비단의 물리적 증표에 의해 연속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용궁부연록>에는 주인공 한생의 각몽을 야기하는 몽중인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몽 이후에 현실세계에 출현하여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성을 연술적으로 입증하는 몽중인물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염부주지>와 세부적인 서사적 형상화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에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사물 혹은 그것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의 물리적인 상태에 의해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이어진다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용궁부연록>은 <남염부주지>와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용궁부연록>의 몽중세계와 현실세계 양쪽에 물리적으로 공존하는 진주·비단과 그것을 몽중세계·현실세계 양 쪽에서 지니고 있는 주인공 한생의 상태는 몽중세계에서 타고 있던 수레가 넘어져 현실세계에서 땅으로 떨어져 있는 <남염부주지>의 주인공 박생의 물리적 상태는 물론 몽중세계에서 먹물을 주입받아 현실세계에서 배가 부풀어오른 <대관재기몽> 주인공 심모의 물리적 상태에 대응되는 것으로, <대관재기몽>은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구축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속성을 계승하는 가운데 특히 <남염부주지>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각몽 과정에서 <대관재기몽> 주인공 심모가 자신의 욕망의 실현은 오로지 현실세계가 아니라 몽유세계에서만 가능할 뿐이라는 인식론적 전환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세계는 주인공 심모의 육체적 병증([자료8]-㉔)을 매개로 몽중세계와 연속되어 있지만 주인공 심모의 현실적

욕망을 충족시켜줬던 몽중세계와 달리 결코 주인공 심모의 현실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세계임이 각몽 직후 주인공 심모 곁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자료8]-㉔)을 통해 몽중세계와 대비적으로 주인공 심모에게 재인식되고 있다. [자료8]-㉔를 보면 각몽 직후 주인공 심모는 현실적 욕망의 실현을 환상계와 현실계 양쪽에서 성취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미 몽중세계에서 현실적 욕망의 대리 충족감을 맛본 주인공 심모에게 있어서 결국 대단원의 양자택일 순간에 저버려야 할 것으로 선택된 것은 주인공에게 현실적 욕망의 성취는커녕 병들어 신음하며 곁에 누워있는 아내로 표상되는 현실적 불우감 밖에 줄 것이 없는 현실세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공 심모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적 욕망이 현실세계에서는 충족될 수 없으며 오직 현실세계가 아닌 몽중세계를 통해 우회적으로 충족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적인 인식에 이르게 하는 <대관재기몽>의 대단원의 결구 방식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극적이다. 몽유 경험을 하기 전 주인공 심모는 비록 현실적 욕망의 결핍감으로 인해 알콜에 중독이 되어 있을지언정 현실적 욕망의 충족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몽유를 통해 현실적 욕망의 환상적 충족을 일단 경험하게 된 주인공 심모는 현실적 욕망의 충족이 오직 몽중세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현실세계에서의 욕망 충족 가능성에 대한 전망 자체를 단아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40년 후 몽중세계에서의 주인공 심모의 부귀([자료8]-㉔)가 예정된 대단원은 환상적 측면에서 보자면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새드엔딩이 된다는 것이다.

<대관재기몽>의 대단원에서 확인되는 새드엔딩은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그것을 계승한 것이다. 대단원 결구에서 <남염부주지>의 박생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뒤 연명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을 맞고 있는 바([자료9]-㉔), 이는 박생이 물리적인 생명 포기를 통해 주체적으로 현실세계와의 단절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실적인 욕망 충족이 불가능한 현실세계와의 물리적인 단절을 통해 현실적인 욕망의 대리 충족이 가능한 환상적인 몽중세

계를 주체적으로 선택함으로써 환상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용궁부연록>의 대단원도 주인공 한생이 名利를 저버리고 명산에 들어가 不知所從 하였다([자료10]-㉔)는 주인공 행동의 외적인 묘사 내부에 현실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현실세계에서의 욕망 성취의 주체적인 포기를 선택한 내면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염부주지>의 결구와 표면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주인공 한생이 현실세계에서의 욕망 충족을 주체적으로 포기함으로써 맞은 <용궁부연록>의 비극적 결말은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미학 속에서 몽중세계와 현실세계의 연속성에 의해 현실적 욕망의 환상적 충족으로 연계된 결과 현실적 차원의 비극적 결구성이 비례적으로 더욱 심화되는 미학적 구도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는 <남염부주지>와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용궁부연록>은 주인공 한생이 현실세계에서의 충족을 포기한 대상이 명리와 같은 현실적 욕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염부주지>와 세부적인 차이가 엿보이기는 한다. 이는 세부적인 대단원 결구 방식에서 <용궁부연록>이 <대관재기몽>으로 승계되는 측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관재기몽>에서는 주인공 심모가 현실세계에서의 성취를 포기한 욕망의 대상이 바로 영달(榮達)로 구체화([자료8]-㉞) 되어 있는 바, 이는 <용궁부연록>에서 주인공 한생이 현실적인 성취를 포기했다고 한 대상을 명리로 명시([자료10]-㉔)하고 있는 양상에 상응된다. <대관재기몽>은 <용궁부연록>처럼 몽유를 통해 현실적 욕망의 대리 충족을 경험한 주인공이 현실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포기한 현실적 욕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비극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Ⅲ. <대관재기몽>의 16세기 전기소설사적 전변성과 소설사적 위상

1. <대관재기몽>의 “비애정류 전기소설” 양식적 변이와 16세기 전기소설사적 전변성

<대관재기몽>은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구축된 양식적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16세기적인 전변성을 보여준다.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속성 범주 내부로 수렴되기는 하지만 16세기 “비애정류 전기소설”로서의 시대적 전변성을 세부적인 서사적 차원에서 차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16세기 “비애정류 전기소설”로서의 전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1) 욕망 충족 과정의 극적·세속적 반복 및 외적 갈등 추가를 통한 현실성·통속성 강화

<대관재기몽>에서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몽중세계의 인정으로 인한 주인공의 현실적 욕망 충족 단계의 중첩된 결과 현실적 욕망 충족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 환상적인 몽유세계 속 현실적인 욕망 충족 과정을 극적으로 반복 확장하는 가운데 현실적 욕망 충족 양상의 세속적 구체화 방식으로 현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원래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는 몽중세계의 주인공 역량 인정으로 인한 주인공의 현실적 욕망 충족 과정이 크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관재기몽>에서는 각 단계가 변이 및 반복 확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인공에 대한 몽중세계의 인정 정도 및 주인공의 세속적 욕망 충족 정도를 극적·세속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보다 상대적으로 현실적 편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① 몽중세계 사자의 禮聘·請聘 고지를 통한 주인공의 입몽 전 경력 인정
- ② 몽중세계 主宰者와의 만남 및 談話·作文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 ③ 몽중세계 주재자의 禪位 및 膳物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주인공 박생·한생은 입몽 직후 ①의 "몽중세계 사자의 예빙·청빙 고지를 통한 주인공의 입몽 전 경력 인정" 단계에서 당초 현실세계에서 구축해 놓은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아 몽중세계 염라국·용궁 방문을 허가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염부주지>에서는 사자 역할을 하는 염왕국의 守門者와 黑衣白衣童子를 통해 주인공 박생이 염라왕에게 각각 '이치를 아는 識理君子'와 士로 인정받고 있음이 확인되며, <용궁부연록>에서는 용왕의 사자인 幃頭郎官者를 통해 주인공 한생에 대한 용왕의 청빙이 고지됨으로써 주인공 한생의 능력에 대한 용왕의 인정이 이미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염부주지>의 박생은 올바른 유학자로서의 儒業을 인정받은 경우고, <용궁부연록>은 뛰어난 문사로서의 文業을 인정받은 경우가 된다.

여기서 주인공 박생·한생이 현실세계에서 구축한 경력·능력에 대한 몽중세계의 인정 양상은 각기 미시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는 바, 주인공 박생의 입몽이 박생의 현실세계 속 유업에 대한 몽중세계의 인정 보다 선행하는 <남염부주지>와 달리, <용궁부연록>에서는 주인공 한생에 대한 몽중세계의 인정이 한생의 입몽 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남염부주지>에서는 ①의 "몽중세계 사자의 예빙·청빙 고지를 통한 주인공의 입몽 전 경력 인정" 단계가 주인공 박생의 우연한 입몽을 계기로 이루어지지만, <용궁부연록>은 몽중세계 주재자인 용왕에 의해 상량문 작성에 적합한 문사로 주인공 한생이 선택된 결과 입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역량에 대한 몽중세계의 인정 정도가 <남염부주지>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관재기몽>은 일단 주인공 심모의 입몽이 몽중세계 주재자의 주체적인 청빙에 의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①의 "몽중세계 사자의 예빙·청빙 고지를 통한 주인공의 입몽 전 경력 인정" 단계가 <용궁부연

록〉 보다는 〈남염부주지〉 쪽에 가깝다. 대신, 〈대관재기몽〉은 우연히 입몽한 심모에 대한 몽중세계의 예빙이 몽중세계 주재자의 즉각적인 관직·관복·주택·가속 하사로 구성되어 확장되어 있는데, 이처럼 몽중세계 주재자와 주인공이 사상적·문학적 합일점을 찾기 전에 바로 주인공에 대한 몽중세계 주재자의 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나타나지 않던 양상이다. 〈대관재기몽〉은 ①의 “몽중세계 사자의 예빙·청빙 고지를 통한 주인공의 입몽 전 경력 인정” 단계의 입몽 패턴 측면에서는 주인공의 역량에 대한 몽중세계 인정 정도가 〈용궁부연록〉 보다 상대적으로 약화 되어 있는 〈남염부주지〉에 가깝지만, 입몽 직후 주인공에 대한 몽중세계 주재자의 인정이 단지 사자의 고지를 매개로 간접화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몽중세계 주재자인 천자가 직접 나서서 주인공 심모에게 반복적으로 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몽중세계 주재자의 인정 정도가 오히려 〈용궁부연록〉 보다도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11] 천자의 조칙으로 신에게 ㉔金紫光祿大夫에 제수하시고 ㉕관복을 하사하시었다. (중략) 천자께서 섬돌에 올라 앉으라 명하시고 ㉖잔치를 베풀어 위로 하였는데 깃옷은 휘황찬란하고 천상의 음악이 이미 펼쳐지고 종과 북소리가 함께 울리고 황금으로 만든 쟁반에 옥 술잔이요, 맛있는 과일 안주와 고기 안주의 향그러운 냄새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찍이 실로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풍악이 멈추자 천자께서 대궐 안으로 드시더니, 칙령으로 ㉗홀륭한 집 한 구역을 주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였다. ㉘신이 대궐문을 걸어 나아가 말을 타고 고삐를 당기니 방울소리 영롱했다. ㉙하인들이 떠들썩하게 소리 지르며 대궐 동쪽 8, 9리쯤 되는 어떤 한 집에 들어가니, 층층으로 된 누각이 높이 솟아 있고 붉은 벽에 햇살이 빛났다. 문에는 창을 나열하고, 취장과 주렴에는 금은을 매달았으며 늘 어선 방이 수십 개였다. ㉚미인들은 비녀와 귀고리를 하고 흰 비단 옷을 땅에 끌고 들어와 다투어 아뢰고 옷을 벗기니, 이불과 베게에는 향기가 영겼으며 미인들은 기름지고 향기가 났다. (중략) 마침 창고에 저장된 것을 찾아보도록 하니 ㉛문채나는 비단과 산호가 보관되어 있고 금은의 진귀한 보석은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중략) 또한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약혼하도록 하고 ㉜正妻로 장씨를 정하니 이름은 玉蘭으로 張衡의 딸이었다.²⁴⁾

주목되는 것은 <대관재기몽>의 ① 단계에서 강화되어 되어 있는 바, 주인공 역량에 대한 몽중세계의 인정이 세속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11]에서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는 입몽 직후 한때 조정의 요직에 있었던 경력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고려 시대 정2품인 금자광록대부의 고관직([자료11]-㉗)과 관복([자료11]-㉘), 御賜宴([자료11]-㉙), 크고 호화로운 저택([자료11]-㉚)과 하인([자료11]-㉛)·미인([자료11]-㉜)·아내([자료11]-㉝)·비단금은보화([자료11]-㉞)로 구성된 家屬·家藏을 하사받고 있는데, 이러한 관직·관복·어사연·주택·가속·가장은 현실세계의 儒業者가 추구하는 현실적 성취 중 입신출세와 부귀공명을 입증하는 세속적 구성물을 망라하여 반복적으로 병렬시킴으로써 구체화 시킨 한 것이다. 특히, <대관재기몽>의 ① 단계([자료11])에서 주인공 심모가 받은 금자광록대부 관직은 몽중세계 문장국 천자에 앞서 주인공 심모를 예빙한 조선전기 대표적 문인 박은에게 제수된 몽중세계 문장국 관직인 崇祿參贊官과 동일한 정2품이라는 사실이 대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인공 심모의 현실적 욕망 충족을 타자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외면화 시킴으로써 세속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관재기몽>의 ① 단계([자료11])에서 관직 외 관직·관복·어사연·주택·가속·가장 등이 몽중세계 천자에 의해 주인공 심모에게 내려지는 모습은 지극히 화려하고 휘황찬란하며 사치스럽기 그지 없는 바, 현실세계 사대부 남성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성취하고자 한 세속적 욕망의 최대치를 형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4)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天子特拜崇祿參贊官(中略)天子令陞階許坐, 賜宴以慰, 羽儀輝煌, 鈞天既張, 鐘鼓俱振, 金盤玉杯, 餽膳薰香, 鼻口所納嘗, 實非人間之有, 內侍侑宣醞一爵, 臣量弱不能盡傾, 坐見李右相奎報嗜飲, 飲至一斗不醉, 衣上多有酒痕樂闋, 天子入大內, 勅賜臣甲第一區, 臧獲以萬計, 臣步出國門, 乘騎按轡, 錯貝玲瓏, 騶從喧喝, 引入闕東八九里許一宅, 層構隆崛, 赭堊耀日, 門列榮戟, 供帳簾櫳, 絡以金銀, 比房數十, 蛾眉笄珥, 齊紈曳地, 競謁解衣, 衾枕凝香, 肥膩潤脂(中略)遂命披閱, 庫藏綌綌, 珊瑚金銀瓊珍(中略)天子詔約婚, 定正妻張氏, 名玉蘭 卽張衡女.”

〈대관제기몽〉의 ① 단계([자료11])에서는 몽중세계 천자가 주인공 심모에게 내린 하사품의 고귀함과 호사스러움을 반복적으로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대관제기몽〉 주인공 심모가 현실세계에서는 성취하지 못했으나 몽중세계에서 비로소 충족하게 된 세속적 욕망의 실체를 미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에 비례하여 주인공 심모의 현실적 욕망의 충족 정도도 세속적인 차원으로 중첩되어 확장되게 된다. [자료11]-㉔에서 몽중세계 천자에게 관직·관복·御賜宴을 내려 받고 역시 몽중세계 천자가 내린 권속들이 대기하고 있는 호화저택으로 遊街하는 득의한 모습은 몽중세계에서 환상적으로 대리 만족된 주인공 심모의 세속적 욕망 충족 상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된다.

이 점에서 〈대관제기몽〉의 ① 단계([자료11])에서 관직·관복·御賜宴·주택·하인·미인 등은 현실세계에서 결핍되어 있던 주인공 심모의 세속적 욕망을 환상세계에서 물질적으로 대상화 해놓은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관제기몽〉은 몽중세계 주재자에 의해 하사되는 주인공의 세속적 욕망의 물질적인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결핍되어 있던 주인공의 욕망이 물질적으로 충족되는 양상을 ① 단계에서 중첩·확장함으로써 주인공에 대한 몽중세계 주재자의 인정 및 주인공의 현실적 욕망 충족 정도를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 보다 심화 하는 전변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은 ②의 “몽중세계 主宰者와의 만남 및 談話·作文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가 몽중세계 주재자와 주인공 간의 직접적인 담론을 통한 합일감 확인 및 請作授文을 통한 우회적 공감 확인으로만 그치는데 반해, 〈대관제기몽〉에서는 몽중세계 인물과의 대결을 통한 몽중세계 문장국의 체제를 수호라는 새로운 형태의 외적 갈등이 두 번에 걸쳐 병렬적으로 추가되어 있다. 하나는 詞章派인 몽중세계 문장국 천자의 치세에 반기를 든 道學派 김시습의 반란을 제압하여 문장국의 사장파적 체제를 수호한 공을 인정받아 공신의 지위에 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사장파적인 神義論²⁵⁾의 주창자 이규보를 탄핵하여 반도학파적 질서를 수호한 공을 인정받아 정승에 필적하는 經

筵事の 우두머리 지위에 오른 것이다. 전자가 武功으로 형상화 된 직접적인 演義 모티프와 결합된 경우라면, 후자는 文功으로 우회된 간접적인 연의 모티프와 결합되어 축소된 경우가 된다.

[자료12] ① ㉔신이 기운을 북돋고 혀를 펴 휘파람을 한 번 부니 적의 기운이 꺾였고, 휘파람을 두 번 부니 萬騎의 군사들이 북으로 달아났다. 휘파람 소리가 격렬하다가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난새와 봉황새가 서로 날며 바다와 산의 색이 편하여 천지가 진동하니, 무릇 배반한 자들이 몇 명 남지 않고 바람 따라 모두 무너졌다. 적장 김시습이 손을 뒤로 묶이고 투항하여 말하기를 “文壇의 어른 이신 심공께서 오신 줄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㉔신이 글을 써서 개선을 알리니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여 포상을 내리면서 좌우를 돌아보고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오랑캐의 기마병을 물리쳤다고 하더니,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보았느라.” ㉔培植斯文 徑輪一時鎮國功臣의 호를 내리고 安東伯으로 삼았다. ㉔이로부터 위세와 명성이 날로 드러나고 천자께서 돌봐주심이 더욱 융성하여 언제나 새벽에 나아가서 밤늦게 들어와 분골쇄신하며 나라에 보답하였다. 벼슬을 한 지 20년만에 아들(㉔)을 낳고 손자(㉔)를 길러 門閥(㉔)이 빛났으며, 봉록을 萬鍾이나 받으니 집의 재산(㉔)이 더욱 넘쳤다.²⁶⁾

② ㉔신은 항상 우의정 이규보를 천박하게 생각하였는데 대궐로 나아가 상소하기를 “이 아무개의 문장은 사치스럽고 유치하여 뼈대가 없으니, 비록 빠르기가 귀신과 같으나 귀하게 여길 것은 못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㉔천자께서 그 아 된 것이 옳다고 여겨 신에게 오거서(五車書)를 하사하시고 ㉔嶺南經筵으로 특진시켰다.²⁷⁾

25) 김시습, 「李奎報의 新意論과 詩의 特質」, 『한국한문학연구』 3, 한국한문학회, 1978.

26)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臣鼓氣張唇, 嘯一發賊膽沮喪, 嘯再發, 萬騎北走, 嘯聲激遠, 彩雲掩靄, 鸞鳳交翔, 海岳變色, 天地振盪, 凡叛有數, 嚮風奔潰, 敵將金時習, 面縛投降曰, 不意詞壇老將沈令公至矣, 臣以露布奏捷凱旋, 天子大喜褒獎, 顧謂左右曰, 古有長嘯却胡騎, 今於卿見之, 命賜培植斯文經綸一時鎮國功臣號, 封安東伯, 賞賜累鉅萬.”

27)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臣常短右相李奎報, 詣闕抗疏曰, 李某文章浮藻, 柔脆無骨, 雖捷疾如神, 不足貴也, 餘不記, 天子可其奏, 賜臣五車書, 加特進嶺南經筵.”

[자료12]-①에서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는 표면적으로 單騎匹馬의 병법으로 도학과 김시습의 반란을 무공으로 제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12]-①-㉔에서 보듯 심모의 실제 김시습 역모 정벌은 휘파람으로 상징되는 사장과와의 문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문공이지만 표면적으로 무공처럼 연의적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주인공 심모의 입공이 文武 양 측면을 겸전하여 탁월한 경지에 오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조 문무 사대부가 욕망했던 현실적 성취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형태로 주인공 심모의 욕망 충족 양상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가 몽중세계 천자로부터 제수 받고 있는 관직은 안동백([자료12]-㉔)인데, 伯爵은 일반 신하로서 실제로 封爵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公·侯·伯·子·男의 5등작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고위 봉작²⁸⁾에 해당한다. 백작은 종1품에 해당하는 고위 관직²⁹⁾인 바,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구축된 ②의 “몽중세계 主宰者와의 만남 및 談話·作文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를 연의적 모티프를 통해 영웅적으로 중첩 확장 함으로써 당초 ① 단계에서 제수받았던 정2품 관직 보다 한 단계 높은 종1품 관직으로 승급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다.

[자료12]-㉔는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가 ②단계를 통해 몽중세계의 인정을 획득하여 입신출세 한 결과 누리게 된 부귀영화를 세속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형용한 부분인데, 특히 아들(㉔)·손자(㉕)·문벌(㉖)·家産(㉗)은 당초 ①단계에서 주인공 심모의 개인적 차원으로 성취되었던 입신양명과 부귀공명의 정도가 가문의 차원으로 구축되어 영속적인 계승체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점층적 확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가 몽중세계에서 우회적으로 획득한 충족감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문 형성·유지·계승·번영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자료12]-㉔에 와서 조선조 사대부 남성들이

28) 김기덕, 「고려조의 왕족봉작제」, 『한국사연구』 52, 1986.

29) 김기덕, 앞의 논문.

일반적으로 추구했던 현실적 욕망의 전 영역이 포괄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연의적인 외적 갈등이 <대관재기몽>의 ②단계에 부가됨으로써 주인공 심모의 세속적 욕망 성취를 가문적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현실적 욕망 충족의 완전성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료12]-②는 [자료12]-①의 몽중세계 인물과의 외적 갈등에서 軍功에 의한 연의 모티프를 文功에 의한 연의 모티프로 대체하고 상대 인물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외적 갈등을 제3자와의 비대면 담론 속에 수렴하여 간접화함으로써 물리적인 연의적 타격을 예술적인 연의적 타격으로 변의한 형태다. [자료12]-①-㉔의 역모 수괴 김시습 군에 대한 주인공 심모의 물리적인 병법 공격은 [자료12]-②-㉔의 우의정 이규보에 대한 주인공 심모의 탄핵이라는 담화적인 작문법 공격으로 대체되어 있으며, [자료12]-①-㉔의 물리적인 병법 공격의 상대인 김시습에 대응하는 대결 상대 인물인 이규보는 [자료12]-②-㉔의 문면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대치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인공 심모가 이규보를 탄핵하는 상소문 속에 언급됨으로써 외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다.

[자료12]-①-㉔의 물리적 軍談 연의가 [자료12]-②-㉔의 예술적인 文談 연의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료12]-①-㉔와 [자료12]-②-㉔에서 보듯 주인공 심모에 대한 몽중세계 주재자인 천자의 일치감은 양자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자료12]-①에 비해 [자료12]-②에서 달라지고 있는 점은 환경세계와의 외적 갈등을 통해 주인공 심모가 도달하고 있는 관직의 수준이다. 몽중세계 천자와의 문담으로 수렴되어 간접화 된 이규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결과 주인공 심모가 획득한 관직은 領經筵事([자료12]-②-㉔)다. 영경연사는 조선조 經筵廳에 배치된 정1품 관직으로,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三公이 맡는 經筵事를 통솔하는 으뜸 관직인 영경연사는 조선조 사대부 남성이 도달할 수 있었던 최고위직인 영의정에 대응된다. [자료12]-②-㉔의 문담 속에 간접화 되어 수렴되어 있는 주인공 심모의 대결 상대 이규보가 우의정이었다는 사실

을 고려한다면 주인공 심모에 대한 영경연사 제수([자료12]-②-㉔)는 이규보와의 대결에서 주인공 심모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인공 심모는 당초 물리적 군공 대결 승리를 통해 [자료12]-①-㉔에서 획득했던 중1품 관직에서 더 나아가 또 한번 승격하여 정1품 관직에 제수되고 있는 바, [자료12]-②의 연술적 문공 대결은 주인공 심모가 최종적으로 조선조 사대부 남성들의 현실적 욕망의 최고치인 정1품 관직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설정되어야만 하는 필수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대관재기몽>은 [자료12]-①의 물리적 군공 대결에 이어지는 [자료12]-②의 연술적 문공 대결 설정을 통해 주인공 심모의 현실적 욕망 성취의 과정을 점층적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인공 심모의 현실적 성장 과정의 형상화를 통해 <대관재기몽>은 단지 몽중세계 주재자와 주인공의 연술적 교류를 통해 합일감의 공유 및 주인공의 욕망 대리 충족 양상만을 형상화 하는 데 그쳤던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과 달리 몽유의 환상성 속에서 현실성의 최대치를 구현해 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관재기몽>의 ③ ‘몽중세계 주재자의 禪位 및 膳物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와 달리 몽중세계에 대한 주인공의 분리 모티프에 있어서 극적 형상화가 강화되어 있다. 원래 ③의 ‘몽중세계 주재자의 선위 및 선물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는 각몽 직전에 주인공의 역량에 대한 몽중세계 주재자의 인정이 재확인 됨으로써 주인공과 몽중세계 주재자 간의 합일감이 유지되는 부분이다. <남염부주지>에서는 ②의 ‘몽중세계 주재자와의 만남 및 담화·작문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주인공 박생의 사상적 역량을 인정했던 염라왕이 자신의 제위를 선위함으로써 박생의 사상적 역량을 재인정하는 동시에 양자 간의 합일감을 재확인한다. 주인공 박생과 염라왕 간의 일치감에 균열을 가할 어떠한 몽중세계 인물도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둘 사이의 합일감은 견고하며, 박생의 역량에 대한 인정은 몽중세계 모든 인물들에게 공유되어 주인공 박생과 몽중세계 간의 합일감으로 치환된다. <용궁부연록> 역시 <남염부주지>와 마찬가지로 ③의

‘몽중세계 주재자의 선위 및 선물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주인공 한생과 몽중세계 주재자 간의 합일감이 그대로 유지된다. <남염부주지>와의 차이점은 이미 ②의 ‘몽중세계 주재자와의 만남 및 담화·작문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바, 한생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용왕의 인정이 자기 지위의 양도가 아닌 값비싼 보물의 선물을 통한 물질적인 차원에서 재확인 된다는 정도다. <남염부주지>처럼 <용궁부연록>에서도 주인공 한생과 용왕 사이의 합일감을 깨뜨리는 제3의 인물이 별도로 출현하지 않으며, 양자 간의 견고한 합일감은 몽중세계 모든 구성원들에게 확산되어 주인공 한생과 몽중세계 사이의 일치감으로 수렴된다.

이처럼 몽중 서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몽중세계와 주인공 간의 합일감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과 달리 <대관재기몽>에서는 주인공 심모와 문학관이 일치하지 않는 제3자와의 외적 갈등이 개입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대관재기몽>의 ‘③ 몽중세계 주재자의 선위 및 선물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확인되는 몽중세계와 주인공 심모 간의 세계관 불일치는 주인공 심모의 사장과파적 문학관을 공유하지 않는 특정 인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몽중세계 천자를 비롯한 여타의 등장인물들과 주인공 심모 사이의 일치감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료13] 천자께서는 근심스레 기뻐하지 않고 한 箭書를 보도록 하셨다. 그것은 ⑦翰苑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장소였다. 장소에 이르기를, “심 아무개는 속세의 허물을 벗지 않았고, 지나치게 自任 하며 크게 私利를 꾀하니,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⑧천자께서는 “한 때의 뜬소문을 어찌 마음에 두겠는가?” 하시고, 이어 大觀先生이라는 호를 내려 주셨다.³⁰⁾

[자료13]-⑦는 <대관재기몽>의 ‘③ 몽중세계 주재자의 선위 및 선물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 추가된 제3의 인물과의 외적 갈등 부

30)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愀然不悅, 使見一箭, 乃翰苑先生等數臣疏也, 云沈某塵骨未蛻, 濫荷鴻私, 餘不記, 天子曰, 一時浮議, 何用介懷, 仍賜號大觀先生.”

분이다.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를 탄핵하며 외적 갈등을 야기한 인물인 翰苑 선생은 唐나라 翰林院을 본떠 신라조 元鳳省으로 시작되었다가 고려조 學士院·翰林院·詞林院·藝文館·藝文春秋館을 거쳐 조선 성종조에 弘文館으로 성립³¹⁾된 일종의 국립 학문기관의 학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원선생은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심모가 ②의 ‘몽중세계 주재자와의 만남 및 담화·작문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군공을 통해 제압했던 김시습과 같은 도학과에 해당한다. ②의 ‘몽중세계 주재자와의 만남 및 담화·작문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군담을 매개로 전개되었던 도학과 김시습과의 외적 갈등이 [자료 13]-㉔에 와서 언술적 담론을 매개로 한 도학과 학사와의 외적 갈등으로 반복되고 있는 형태다.

②의 ‘몽중세계 주재자와의 만남 및 담화·작문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는 주인공 심모가 도학과와의 외적 갈등에서 승리함으로써 몽중세계와 주인공 심모 간의 균열이 봉합되었지만 [자료13]-㉔에서는 도학과와의 외적 갈등으로 인해 주인공 심모와 몽중세계의 총체적인 합일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비록 몽중세계 천자가 주인공 심모에게 세속적인 사리사욕을 탐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의미의 大觀先生이라는 호를 내려줌으로써 도학과 학사의 탄핵 내용을 부정하고 주인공 심모에 대한 자신의 합일감을 견지([자료13]-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몽중세계 일부 구성원과 주인공 심모 사이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주인공 심모의 고향, 즉 현실세계로의 귀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관재기몽>에서는 제3의 몽중세계 인물과의 외적 갈등이 주인공 심모의 각몽에 의한 현실세계 귀환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③ 몽중세계 주재자의 선위 및 선물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관재기몽>의 각몽 서사에서는 주인공과 몽중세계 간의 총체적인 합일감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몽중세계 주재자에 의해 주인공의 현실세계 귀환이 고지되거나 주인공 스스로 몽중세

31) 최승희, 「弘文館의 성립경위」, 『한국사연구』 5, 1970.

계 주재자에게 현실세계 귀환을 고지하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과 달리 서사적인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③ 몽중세계 주재자의 선위 및 선물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는 주인공과 몽중세계의 합일감이 총체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현실세계 귀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연성은 서사적 필진성이 아니라 오직 幽明의 간극이라는 철학적 차원에서 비약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대관재기몽>은 ‘③ 몽중세계 주재자의 선위 및 선물을 통한 주인공 역량 인정’ 단계에서 주인공과 몽중세계 주재자와의 합일감 유지라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몽중세계 일부 구성원에 의해 야기된 외적 갈등을 설정을 통해 몽중세계와 주인공 사이의 총체적 합일감에 균열을 냄으로써 주인공이 현실세계로 귀환할 개연성을 서사적으로 필진하게 형상화 해내는 전변을 구현해 냈다고 볼 수 있다.

2)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한 작가 심의의 전기적 지평 연계와 주인공의 현실적 결핍감 강화

환로에서 쫓겨나 술로 지새며 현재 환경세계와 불화한 삶을 살고 있는 불우한 인물로 형상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을 계승하고 있는 <대관재기몽>의 전기소설 양식적인 인물 형상은 작자 심의의 실제 전기적인 생애와 관련된 역사적인 지평과 겹치며 그 편폭이 확장된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가 김시습의 전기적 생애와 관련된 역사적 지평이 주인공의 인물 형상에 직접적으로 치환되지 않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과 달리 <대관재기몽>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14]

- ① ㉞나는 두려워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㉞“臣은 豐山 沈 아무개이온데”³²⁾, (하략)”

- ② ㉔천자의 용안은 맑고 깨끗하여 (중략) ㉕臣이 옥섬돌 아래 엎드려³²⁾
 ③ 이어 大觀先生이라는 호를 내려 주시며³⁴⁾
 ④ 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窮僻하고 榮達하는 것은 운수에 달려 있는데, 어찌 깨어 있을 때와 꿈꿀 때 이것을 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³⁵⁾

[자료14]-①-㉔을 보면 <대관재기몽>의 화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가 아니라 청자에게 자신을 1인칭 겸칭인 牛馬走로 지칭하는 주인공이다. 牛馬走가 자신을 소·말처럼 달리는 종으로 겸손하게 일컫는 1인칭 대명사³⁶⁾라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대관재기몽>은 주인공이 독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자료14]-②-㉕의 臣이라는 표현은 원래 임금에 대한 자칭이자 자신에 대한 겸칭³⁷⁾으로, [자료14]-①-㉔에서 독자에게 화자로서 자신을 겸칭 하던 <대관재기몽>의 주인공이 [자료14]-②에서 몽유세계 천자([자료14]-②-㉔)를 대면하게 되면서부터 천자에 대해 [자료14]-①-㉔의 牛馬走처럼 자기 자신을 겸칭하여 자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선택한 결과 <대관재기몽>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외적인 행동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 되거나 전지적 작가의 명시적 표현을 통해 전달되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과 달리 주인공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독자에게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 주인공의 내면이 작가의 목소리를 거치지 않고 주인공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되면 주인공의 내면 심리에 대한 독자의 공감은 상대적으로 확대되게 마련이다. 예컨대, <대관재기몽>에서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에 대한 독자의 공감 <대관재기몽>에서는

32)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走戰慄伏地曰, 賤臣豐山沈某.”

33)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天顏清癯 (中略) 臣伏玉墀下.”

34)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仍賜號大觀先生.”

35)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噫人生於世, 窮達有數, 豈有覺夢兼之者.”

36) 조기영·이상익,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아담북스, 2011.

37) 『교학 대한한사전』, 교학사, 2004.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 양자 모두와 거시적인 차원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비극적 결구 방식을 공유하면서도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변이 양상이 확인되는 바, 현실적인 차원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은 주인공의 주체적 선택이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는 주로 외면적 행위를 통해서만 추측 가능하도록 형상화 되어 있는데 반해 <대관재기몽>에서는 [자료14]-④처럼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구축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인 미학을 <대관재기몽>이 계승하는 과정에서 주로 외면적 행위 묘사를 중심으로 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대단원 결구 방식 이면에 숨겨진 주인공의 심리를 1인칭 주인공의 직접적인 자기 내면 묘사를 통해 문면 밖으로 끌어내어 보다 명확히 기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대단원 결구 방식이 양식적인 전범으로 하되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꾼 <대관재기몽>의 창작 과정 속에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는 문면에 잠류해 있었던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끌어내어 부각시키는 양식적 범주 내부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관재기몽>의 1인칭 주인공의 성씨는 작가 심의와 같은 豐山 沈氏로 설정([자료14]-①-④)있을 뿐 아니라 작가 심의의 호인 大觀齋와 같은 大觀先生[자료14]-③)로 설정되어 있다. <대관재기몽>의 작가가 심의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선택하고 있는 <대관재기몽>의 1인칭 시점 주인공이 작가 심의와 같은 沈氏 성씨와 大觀 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면 독자의 독서 과정 중에는 허구적 인물인 <대관재기몽>의 1인칭 주인공과 역사적 인물인 작가 심의를 동일한 인물로 파악하는 연계 인식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대관재기몽>의 1인칭 주인공 심모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독자에게 있어서 16세기 문인이었던 작가 심의의 그것과 동일시될 수 있으며, <대관재기몽>의 1인칭 주인공 심모가 겪은 환로 단절 및 일부 몽중세계 인물과의 불화는 작가 심의가 中宗조 도학과·사림파의 정쟁 과정에서 관직에서 쫓겨나 실제 겪었던 정

치적 불우의 역사적인 경험적 지평과 일치하는 것으로 독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 심의가 실제로 정치적 불우를 경험했던 전기적인 지평은 <대관재기몽> 1인칭 주인공 심모가 겪었던 현실적 불우의 허구적인 지평 속으로 치환되어 수렴된다. 동시에 <대관재기몽> 1인칭 주인공 심모의 인물 형상에 내포된 환경세계와의 불화 및 현실적 결핍감의 정도는 <대관재기몽> 작가 심의의 역사적 생애와 연계되어 보다 더 큰 울림으로 증폭된다. 텍스트 내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애정류 전기소설” 표시 중 하나인 <남염부주지> 보다 주인공의 현실적 욕망 결핍이 상대적으로 다소 약화되어 있었던 <대관재기몽>은 주인공의 1인칭 주인공 시점 형상화를 통해 작가 심의의 실제 전기적인 지평과 연계되면서 오히려 <남염부주지> 못지않게 현실적 결핍 정도가 증폭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2. <대관재기몽>의 전기소설사적 의의

<대관재기몽>이 전기소설사에서 지니는 의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비애정류 전기소설” 작품 목록 확충이다. “비애정류 전기소설”은 “애정류 전기소설”과 함께 전기소설을 구성하는 양대 하위유형이면서도 동일한 시기에 일시에 출현하지 않았다. 전기소설사의 시작기인 나말여초에 출현한 “애정류 전기소설”과 달리 “비애정류 전기소설”은 조선초기에 가서야 전기소설사에 등장했다. “비애정류 전기소설”은 15세기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창작하면서부터 성립된 하위유형으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성립 시기는 “애정류 전기소설”이 전기소설사에 출현한 10세기 보다 무려 5세기나 뒤가 된다.

현재까지 “비애정류 전기소설”로 거론되어 온 작품은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安憑夢遊錄>·<書齋夜會錄>·<崔生遇眞記>의 5편이 전부다. <대관재기몽>은 지금껏 몽유록 양식 범주에서 주로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비애정류 전기소설” 목록에 포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

관재기몽>을 “비애정류 전기소설” 하위유형에 포함하게 된 결과 “애정류 전기소설”에 비해 전기소설 전체 범주 속에서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작품 목록이 확대되게 되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비애정류 전기소설” 중심의 16세기 전기소설사적 차별성 강화이다. 16세기 이전, 즉 전기소설의 생성기인 나말여초부터 15세기까지 전기소설사는 “애정류 전기소설”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최치원>·<조신>·<김현감호> 등 누구나 인정하는 나말여초 전기소설 작품은 “애정류 전기소설”이며, 김시습이 창작한 15세기 전기소설 5편 중에서 절반이 넘는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취유부벽정기> 3편이 남녀간의 애정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애정류 전기소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16세기 전기소설사는 다르다. 하위유형 비중의 주도권이 “애정류 전기소설”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로 이동해 있다. 16세기 전기소설사에서 거론되어온 작품은 신광한의 <하생기우전>·<안빙몽유록>·<서재야회록>·<최생우진기>의 4편인데, 몽유록³⁸⁾ 혹은 몽유록·전기소설 중간 소설 양식³⁹⁾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안빙몽유록>을 제외한 3편의 16세기 전기소설 작품 목록에서도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비애정류 전기소설”이기 때문이다. “애정류 전기소설”을 주축으로 하던 15세기 이전 전기소설사가 “비애정류 전기소설”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으로, “비애정류 전기소설” 중심성은 나말여초부터 15세기까지의 전기소설사에 대해 16세기 전기소설사가 지니는 차별적 정체성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대관재기몽>을 16세기 전기소설사에 포함시키게 되면 “비애정류 전기소설”이 전기소설 하위유형 분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애정류 전기소설” 중심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 중심으로의 하위유형 비중 강화라는 16세기 전기소설사의 특수성이 <대관재기몽>의 “비애정류 전기소설” 양식적 규정으로 인해 확

38) 조현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39)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17세기 전기소설사의 현실성 강화 맥락에 연계되는 선제적 기반 구축이다. 주지하다시피 17세기는 나말여초에서 15세기까지 수녀·귀녀·몽녀·염라왕·용왕과의 환상적 사랑 및 교유를 중심으로 한 전기소설의 비현실적 서사가 인간과의 애정 서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현실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시기이다. 17세기 전기소설사에서는 원래 유사몽유 모티프를 매개로 현실세계 속에서 수녀·귀녀·몽녀와 같은 이계 인물과의 만남·교유가 이루어졌던 “애정류 전기소설”에서는 이계 인물이 인간으로 교체되는 방향으로 현실성의 강화가 진행되었다. 반면, 직접적인 이계 탐방을 매개로 幽明의 탈계계적인 이계 인물과의 만남·교유를 야기했던 몽유 모티프가 현실세계 속에서의 탈계급적인 이질적 계급 인물과의 만남·교유를 야기하는 類似夢遊 모티프로 일원화되면서 몽유 모티프를 통해 환상적인 이계 탐방이 직접적으로 전개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은 17세기 전기소설사에서 소거되는 방향으로 현실성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7세기 전기소설사에서 환상적인 몽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비애정류 전기소설”이 소거시킨 현실성 강화의 지향성은 16세기 전기소설사의 어떤 부분과 접맥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수 있겠는데, 그 해답을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대관재기몽>이 된다. 15세기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최초로 성립된 바, 환상적인 몽유 모티프를 매개로 한 이계 탐방에 의해 현실적인 욕망의 대리 충족을 이루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인 범주 내부에서 현실성 강화를 시험함으로써 17세기 전기소설사로 접맥되는 서사적 기반을 구축한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즉, <대관재기몽>은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양식적인 비현실성을 고수하면서도 입신양명·부귀영화·관직제수·成親成家·一家經營·반란제압 등 현실세계의 사대부 남성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간적인 세속적 욕망의 극단을 반복적으로 성취하는 양상을 확대하는 형태로 현실성의 최대치를 구현함으로써 17세기 전기소설사의 현실성 전성시대를 예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넷째, 나말여초부터 17세기까지 지속된 역사성 강화 흐름 매개적 계승이다. 기실, 17세기 전기소설사는 임병양란(<주생전>·<최척전>)과 같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나 안평대군(<운영전>)과 같은 실존 역사적 인물을 주요 등장인물로 출현시킴으로써 역사성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나말여초 전기소설사에서 <최치원> 같은 작품에서 실존 역사적 인물 최치원의 전기적 지평을 주인공의 전기적 인간의 양식적인 인물 형상과 연계시킴으로써 환경세계에 대해 주인공이 지녔던 단절감과 현실적 결핍감을 증폭시켰던 방식을 확대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관재기몽>의 역사성 구현 방식은 나말여초 전기소설사와 17세기 전기소설사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우선적으로 <대관재기몽>은 당대적 역사성과 괴리되어 있었던 15세기 전기소설사와 달리 1인칭 주인공 시점 선택을 통해 당대 역사적 실존 인물인 작가 심의의 전기적 지평을 주인공과 연계시킴으로써 전기적 인간의 양식적 인물 형상이 지니는 현실적 욕망의 결핍감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최치원>과 같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나말여초 전기소설을 차별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대관재기몽>은 최치원·乙支文德·김시습·李齊賢·이규보·金克己·李仁老·權近·李穡·鄭夢周·李崇仁·柳方善·姜希孟·金宗直 등 1인칭 주인공 시점을 매개로 주인공 심모의 인물 형상에 수렴된 작가 심의처럼 역사상으로 실존했던 문인 지식인·관료들을 대거 등장시킴으로써 당대적 역사성을 나말여초의 시기까지 확장하고 있다. 한편, <대관재기몽>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끌고 온 작가 심의의 실존적 지평에 의해 연계된 것이 도학과·사림과 출신 무수한 사대부 문인·지식인들이 회생되었던 기己卯土禍(1519)의 당대 16세기 역사적 맥락이라는 점에서 17세기 당대 임병양란을 배경으로 역사성의 현재화를 통해 역사성의 확장을 이루어낸 17세기 전기소설사로 계승되는 선구적 면모를 일구어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타자와의 외적 갈등을 통해 서사적 흥미를 추구한 통속성의 선제적 구현이다. 17세기 전기소설사는 주인공과 환경세계의 불화로 그

친 나말여초부터 15세기까지의 전기소설사와 달리 주인공과 특정 악인형 인물과의 외적 갈등을 투입함으로써 통속성 지향을 구현했다. 자신의 사리사욕 추구를 위해 주인공의 비극적 죽음을 야기한 <운영전>의 특이나 자신의 색욕 충족을 위해 주인공의 고난을 야기한 <동선기>의 安琦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악인형 인물과의 외적 갈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17세기 전기소설사는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내부에서 통속적인 서사적 흥미를 제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관재기몽>은 특정 제3의 인물과의 외적 갈등 없이 오로지 주인공과 환경세계의 불화만을 문제 삼았던 15세기의 전기소설사와 달리 주인공과 제3의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17세기 전기소설사로 계승되는 바, 전기소설의 양식적 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속성을 부가하는 서사 방식을 선제적으로 고안해 냈다. 특히, <대관재기몽>에서 새롭게 고안된 외적 갈등의 형상화 양상은 김시습·한원선생의 존재에서도 확인되듯이 주인공과 외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출현시키는 형태라는 점에서 외적 갈등의 병렬적 중첩을 통해 통속성을 극대화하는 통속적인 서사 기법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17세기 전기소설사 보다 앞선 측면도 인정할 수 있다.

I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몽유록의 효시로 규정되어 왔으면서도 여타 16세기 이후의 몽유록에서 확인되는 몽유록의 양식적 전형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작품으로 규정되어 온 <대관재기몽>의 양식적 범주 및 소설사적 의의를 전기소설의 양식적 속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양식적 속성을 규명함으로써 <대관재기몽>이 15세기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을 통해 전기소설사에 새롭게 신설된 “비애정류 전기소설”을 계승하되 16세기적으로 변주한 전기소설임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관재기몽>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과의 양식적 상동성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대관재기몽>의 주인공 沈某는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인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의 주인공 朴生·韓生에서 전형성이 형성된 바, 현실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문사적 욕망을 몽중세계 인물의 인정을 통해 충족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주인공의 인물 형상과 같은 전기적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대관재기몽>의 몽중서사는 이처럼 당초 현실세계에서 결핍되어 있던 심모의 욕망이 몽유의 환상성을 매개로 대리 충족되는 구도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양식적인 욕망 충족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관재기몽>의 몽중세계와 현실세계는 상호 영향 관계에 있는 탈경계적인 연속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적인 양식적 전형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관재기몽>에서 확인되는 바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내부적인 16세기적 전변성이 지니는 전기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대관재기몽>은 욕망 충족 과정의 극적·세속적 반복 및 외적 갈등 추가를 통한 현실성·통속성 강화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한 작가의 전기적 지평 연계 및 주인공의 현실적 결핍감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효시 <남염부주지>·<용궁부연록>에서 구축된 양식적 미학을 계승하면서도 16세기적인 전변성을 보여준다. “비애정류 전기소설”의 16세기적 전변작으로서 <대관재기몽>이 지니는 전기소설사적 의의는 “비애정류 전기소설” 작품 목록 확충, “비애정류 전기소설” 중심의 16세기 전기소설사적 차별성 강화, 17세기 전기소설사의 현실성 강화 맥락에 연계되는 선제적 기반 구축, 나말여초부터 17세기까지 지속된 역사성 강화 흐름 매개적 계승, 타자와의 외적 갈등을 통해 서사적 흥미를 추구한 통속성의 선제적 구현 등의 다섯 가지 측면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沈義, 『大觀齋亂稿』 卷之四, 雜著, 〈大觀齋記夢〉.

교학사, 『교학 대한한사전』, 교학사, 2004.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정연사, 1959.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93.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신해진, 『조선중기 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상, 1978.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조기영·이상영, 『한자성어·고사명언구사전』, 아담북스, 2011.

차용주, 『몽유록계 구조의 분석적 연구』, 창학사, 1979.

김광순, 「조선전기 한문소설의 전개 양상과 유형」,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김기덕, 「고려조의 왕족봉작제」, 『한국사연구』 52, 1986.

김시업, 「李奎報의 新意論과 詩의 特質」, 『한국한문학연구』 3, 한국한문학회, 1978.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연구』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소재영, 「조선조 서사문학의 사적 계보」, 『성곡논총』 27, 성곡언론문화재단, 1996.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5.

안세현, 「조선전기 기문에 나타난 우언 글쓰기 양상과 그 의미」, 『한문학논집』 43, 근역한문학회, 2016.

윤주필, 「우언의 전통과 조선전기 몽유기」, 『민족문화』 16, 한국고전번역원, 1993.

이원주, 「대관제의 몽기·몽사자연지고」, 『한국학논집』 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8.

- 장덕순, 「몽유록소고」, 『동방학지』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 정학성, 「몽유록의 역사의식과 유형적 특질」, 『관악어문연구』 2, 관악어문학회, 1977.
- 조현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2004.
- 최승희, 「弘文館의 성립경위」, 『한국사연구』 5, 1970.

Abstract

A Study on the Styl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Cheongi Novels in <Daegwanjaegeomong>

Kwon, Do-kyung

This study attempted to clarify the stylistic category and the stylistic category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novel in <Daekwanjaekimong>, which has been defined as the beginning of Mongyurok, but has deviated from the stylistic typicality of Mongyurok confirmed in other post-16th century Mongyurok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ylistic attributes of Cheongi novel. First of all, this study proved that the stylistic homogeneity with "Non-affectionary typical Cheongi novel" was confirmed in <Daekwanjaekimong>. The dream narrative of <Daekwanjaekimong> is a structure of the stylistic desires-satisfaction of Cheongi novel in that the desire of the Hero Sim-mo, which was originally lacking in the real world, is vicariously satisfied through the fantasy of the dream. At the same time,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of <Daekwanjaekimong> show the stylistic typicality of Cheongi novel in that they constitute a non-demarcate continuum in a mutually influential relationship.

Nex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heongi novel's internal 16th-century transformation as confirmed in <Daegwanjae Dream>.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Non-affectionary typical Cheongi novel" of <Daekwanjaekimong> is can be defined as five things like the extension of the list of "Non-affectionary typical Cheongi novel", the strengtheness of the historical differentiation of

16th century Cheongi novel centered on "Non-affectionary typical Cheongi novel", the establishment of a preliminary foundation linked to the context of enhancing the reality of the 17th century Cheongi novel history, the mediating succession to the strengtheness flow of the historicity that lasted from the late Silla and the early Goryeo era to the 17th century, and preemptive implementation of popularity that pursued narrative interest through external conflicts with others.

keywords :

Daegwanjaegimong, Simeui, 16th century, Non-affectionary typical Cheongi novel